

# 전방위 국가예산 확보 활동 총력

### 전북도,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만나 협조 요청... 조봉업 행정부지사, 소관별 주요 국가예산사업 필요성 피력

전북도가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실을 차례로 돌며,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10.19),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10.22)를 통해 국회단계 대응 전략과 역할 분담 등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첫 행보로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국회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방문, 소관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했다.

먼저, 고산군 환호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환경생태유지 2단계 조성',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 복원사업', '국립사화적경계 인제개발원 설립' 등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권영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에게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시체계 용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한 동물용 의약품의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복합적인 시설 구축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의 국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상현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서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진흥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반영을 건의하고,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국비 반영도 협조 요청했다.

또한, 최시덕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에

게는,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체계용역비 반영과 함께, 고창갯벌과 지역유산인 염전을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반영도 협조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서는 '전북도 신산업지도 구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건의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피력하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증액 반영 건의와,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에 구축하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의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의 세부사업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신규 반영을 건의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조봉업 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과도 환담을 갖고,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을 다지며,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조봉업 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과도 환담을 갖고,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을 다지며,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조봉업 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과도 환담을 갖고,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을 다지며,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조봉업 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과도 환담을 갖고,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을 다지며,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 '태권투어' 여행상품 인기

### 도, 태권도원·주요 관광지 연계 3차 태권투어 성료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인 '태권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3차 태권투어' 시범운영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태권투어 시범운영은 태권도원과 도내 시·군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고객의 만족도를 살피는 사전여행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부안, 남원, 군산, 완주를 연계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내년부터는 단체여행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단체 여행부터 개별 여행 패키지를 구성해 개별 고객의 접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를 제공,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태권투어'는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함께 즐기고, 보며,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가족 참가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하얀 프로그램'이다.

'태권여행'은 상징지구부터 태권



도원을 산책하며, 밤하늘의 별을 감상한다.

아울러, 상징지구 일련회에서 즐기는 '재즈공연'과 '국악공연', 와인시음회 등은 무주 청정자연의 운치와 더불어, 한옥으로 지어진 상징지구의 웅장함과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좋다.

한편, 전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태권투어'를 공동 출시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1,669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또한, 도내 주요 관광지와 태권도원을 연계한 신개념 1박 2일 문화관광 상품으로 올 5월부터 판매를 시작에 나서 현재 11월까지 매진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진흥재단(오승환 이사장)과 협력해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전북도를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호남권 통합유망기술상담회 개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호남권 3개 특구의 공공기술 이전·출자를 위해 25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호남권 통합유망기술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호남지역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사업화유망기술을 수요기업에게 소개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공동 추진됐다.

행사는 연구개발특구가 발굴하고, 선별한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해 오프라인 기술상담회와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병행해 개최한다.

'오프라인 상담회'는 기술보유기관과 직접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하며,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테크비즈센터 2층 비즈카페에서 열린다.

'온라인 설명회'는 연구자가 직접 기술을 소개하고, 패널들이 기술의 시장과 권리성·사업성에 대해 토의가 진행되며, 오는 27일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된다.

전북, 광주, 군산 특구가 발굴·선별한 사업화 유망기술은 △농·생명융합, △용·복합소재부품, △용·복합미래수송 분야, △탄소중립·ESG 분야 119건이 있다.

특구재단은 사전에 사업화유망 기술을 공개해 기업의 상담접수·기술매칭을 진행, 13개 공공연구기관과 60여개 수요기업 간 90여건의 1:1 기술 매칭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제26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식 가져

### 경제 대상 김용현· 문화 대상 강광· 나눔 대상 안현숙 씨 선정



전북도가 25일 전북도청에서 '제26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전북도 인권문화축제' 28~29일 온라인 개최

전북도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2021 전북도 인권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을 통해 생중계되며, 모든 행사내용은 자막과

수어 통역이 이뤄져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인권증진과 보호 활동 등 유공자 표창과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담아 14개 시·군 도민 30여 명이 계인권선언 30개 조문을 낭독한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개회식과

전북도가 25일 전북도청에서 '제26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송하진 도지사가 올해의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으로 선정된 경제 대상 김용현씨, 문화 대상 강광씨, 나눔 대상 안현숙씨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분 한분의 노력과 참여가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됐고, 세 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도민들 덕분에 곧 시작될 워드코로나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큰 인물을 찾아 전북의 자존의식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인권토론회, 인권강연, 인권골든벨 등 4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로 도내 인권단체와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장애인 일상영상,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가 겪은 인권문제와 코로나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낸 간호사의 경험담과 최근 부각된 한국형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 등 사회현상을 다룬 인권강연을 준비했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접수

### 전북도, 12월 10일까지 양파·마늘 재배 농가 대상

전북도가 양파와 마늘 농가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받는다.

양파 재배 농가는 익산시와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대상이며, 마늘 재배 농가는 전 시·군이 대상이다.

대상 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는 산락농정의 대표사업 중 하나다.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양파와 마늘의 가격하락으로 391개 농가에 약

17억 원의 차액을 지원했던 사례를 강조하며, 최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절차를 문의하는 농업인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분위기를 전북도가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이 되도록, 현장 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매일의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익산 금강인쇄**

대표 김은호

---

전주매일의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태우**

---

전주매일의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롯데건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